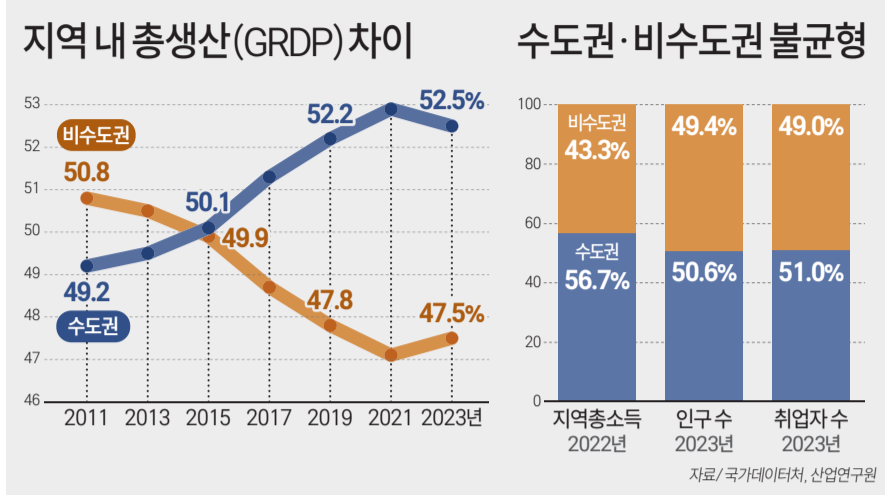


수도권 쏠림 지방경제... 새 지방정부, 中企 해법 시험대

중기중앙회·혁신벤처단체·소공聯
지방정부 정책과제 잇단 제시

GRDP 수도권 한참 우위, 격차 확대
청년들 수도권行, 인력난 계속 심화

산업현장, 투자·재정지원 확대 요구
규제권한 지방이양, 지자체 혁신 주도
소상공인 금융·디지털 지원도 과제



6·3 지방선거가 3일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꾸려질 예정임에 따라 중소벤처소상공인업체가 앞서 제시한 지방 정책 과제들이 향후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50.8%로 수도권(49.2%)을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가 2015년부터 수도권 50.1%, 비수도권 49.9%로 역전되더니 2023년 현재 수도권(52.5%)과 비수도권(47.5%)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디지털 기술기업의 76%(2022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 청년 6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 매년 평균 5만60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충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연구개발(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경기 판교라는 이야기는 지방 기업들에게는 참 슬픈 현실이다. 제대로 된 R&D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고, 제조 현장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출범할 지방정부들은 중소기업계 맞춤형 중기중앙회, 벤처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그리고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선을 앞두고 내놓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참고해 볼 만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이란 비전 아래 오고 싶은 지방, 성장하는 지방, 살고 싶은 지방을 목표로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리소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정 범위 확대,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강소기업 플랫폼을 통한 청년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고숙련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지방투자 보조금내 고용지원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선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중소기업 R&D와 조달 연계체계 구축, 지역거점대·폴리텍대·지역기업간 연계·협업 강화, 지역 주력(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기업 정착을 위해선 노후산단 입주업체 유연화, 청년층 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제 도입 및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벤처협회도 지역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혁신기준 국가 목표제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 ▲지역 전략산업 실증·제도화·자금조달패스트트랙 구축 ▲지역 벤처기업 코스닥 상장 활성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벤처투자 빌리지 구축 ▲지역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공공조달시장 형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구성원의 정착지원

▲지역 특화형 벤처캐피털 조성 ▲지역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혁신정책본부장은 “기존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중앙정부가 관리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5극3특 추진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핵심 산업들이 생겨날 텐데 산업규제 허용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넘겨받아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기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지역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권역별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해 창업, 투자, 인재, 글로벌 진출 등의 기능을 집적시켜야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도 지방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관련 ‘4대 아젠다 22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공통 현안 뿐만 아니라 지역신보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균형 성장 추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액 대출 상품 도입 등의 내용도 두루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반복 사고에 생산 안정성 비상

대전사업장 중단에 천무 등 차질 우려
추진기관 공급 막히면 납품 연쇄 지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주요 무기체계 양산 일정과 방산 협력망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반복된 폭발 사고로 안전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가 길어질 경우 해외 주요 신뢰에도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매출 1조3189억원을 기록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의 4.94%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천무 다연장로켓과 천검 공대지유도탄 등에 탑재되는 추진 기관을 전담 생산하고 있다. 화약과 추진체를 취급하는 공정 특성상 재가동 전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생산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천무와 천검 등 주요 무기체계는 다수의 협력업체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된 구조로 생산된다. 추진기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완성품 조립과 납품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천무는 국내 전력화와 해외 수출이 동시에 진행 중인 대표 수출 무기체계여서 파급력이 더욱 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에스토니아와 약 5200억 원 규모의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전선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물량까지 얽힌 상황에서 생산 안

정성 문제는 납기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고가 향후 빠른 납기를 자랑하는 해외 수주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산 수출 경쟁에서 납기 준수는 단순한 약속 이행을 넘어 국가 방산 브랜드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진체 등 고위험 공정에 정밀 센서와 자동제어 설비,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공정을 도입해 작업자의 직접 투입을 줄이고 안전성과 생산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방산 생산라인에서는 이미 자동화 설비가 정밀 제조 공정을 수행하고 있어 확대 적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원관희 기자 wkh@

대동그룹, 조성우·유용규 부사장 선임

경영 효율화·조직체계 고도화
로봇·모빌리티 등 사업 가속화

대동그룹이 AX 기반 경영 혁신과 미래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임원들을 영입했다.

대동그룹은 딜로이트 코리아(Deloitte Korea)에서 딜로이트 프라이빗(DP) 리더 및 에퀴티 파트너(Equity Partner)를 역임한 조성우 부사장을 대동 경영기획부 문장으로, KT에서 미래사업 전략 수립 및 운영 총괄을 수행한 유용규 부사장을 대동모빌리티 사업총괄로 각각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대동은 올해 ▲AI·로보틱스 상품 혁신 ▲전사적 AX 추진 ▲수익 성장 가시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전사 AX를 통한 경영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농업 피지컬 AI기반의 농업 운영 플랫폼 전환, 그룹 로봇·모빌리티 사업



대동 조성우 부사장

대동모빌리티 유용규 부사장

가속화 차원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조 부사장은 “29년간의 경영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대동의 AX 혁신과 애자일(Agile)한 경영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조직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다양한 신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동그룹의 로봇·모빌리티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초고화력 ‘W 인덕션 프로’ 선보

전 화구 3400W로 조리시간 단축
3D 히팅으로 용기 측면까지 가열

코웨이가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W 인덕션을 다양한 스마트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한 신제품 ‘W 인덕션 프로’를 출시했다.

3일 코웨이에서 따르면 W 인덕션 프로는 전체 화구에 최대 3400W의 강력한 초고화력을 적용해 조리 시간을 줄이고, 혁신적인 ‘3D 히팅 가열 기술’을 통해 요리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우측 화구에 탑재된 이 기술은 바닥면은 물론 용기 측면 높이 4cm까지 열을 입체적으로 전달해 측면 온도까지 높인 것이 특징이다.

조리 용기의 크기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요리할 수 있도록 좌측에는 필요에 따라 두 화구를 하나로 연결해 사각그릴 등 넓은 용기도 경계 없이 쓸 수 있는 ‘플러스 존’을, 우측에는 용기 크기를 자동 감지해 가열 효율을 높이는 ‘듀얼링 기술’을 적용했다. 가열 중 용기를 다른 화구로 이동해도 기존 화력과 타이머가 그대로 연동되는 ‘스마트 오토 센싱’, 용기를 위아래로 움직여 화력을 제어하는 좌측 화구 전용 ‘드래그 파워 컨트롤’ 기능 등이 더해져 조리 동선과 사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외에도 코웨이 W 인덕션 프로는 이중 잠금, 상판 과열 제어 등 22종의 안전 장치를 탑재해 안심시켰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자사몰서 ‘브랜드 위크’

렌탈료 최대 15개월 50% 할인

청호나이스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자사몰(청호나이스몰)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전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 3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얼음정수기 등을 포함해 고객들이 시원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청호나이스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렌탈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이번 브랜드위크에서는 올해 출시한 얼음정수기 ‘The M’을 비롯한 주요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제품별 조건에 따라 최대 15개월 렌탈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유진그룹 동양, 719억 자사주 소각 결정

발행주식 10.26% 해당, 주당가치 제고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보유중인 보통주 2443만9999주와 우선주 17만1980주 등 자사주 총 2461만1979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소각 규모는 장부금액 기준 약 719억원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26%에 해당한다.

3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동일한 기업 가치와 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높아져 주주 환원 효과가 예상된다. 발행 주식 총수 10.26% 감소를 통해 주당 지표가 약 11% 개선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동양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자본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2대 1 주식병합도 추진한다. 이는 발행 주식 수 정비와 주당 거래가격 정상화를 통해 저평가 인식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양은 장기화된 건설업황 부진 속에서도 스튜디오 유지니아, 이태원111, 금왕 에프원 등 핵심 개발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자회사 금융에프원은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해 연간 20억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